

2024년 춘계학술발표대회 : 일반부문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을 적용한 오피스 건축계획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Planning of Office by the Application of Landscape Urbanism

○이 관 수* 김 경 순**
Lee, Kwan-Su Kim, Kyoung-Soon

Abstract

This study has been caused by the lack of publicity that appears as modern society is becoming over-urbanized and the city is lined with office buildings with reckless and stark skylines. Until no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lower floors or interior work spaces of office buildings themselves, but no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whether office architecture interacts as an architectural medium in an urban context.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understand 'landscape urbanism', an architectural theory for solving these problems architecturally or urbanly, and to study whether it can play a role as a building with publicity as well as improving the work efficiency of office employees by applying it to office building plans.

키워드 : 오피스, 랜즈케이프, 어바니즘, 공공성, 랜즈케이프 어바니즘
Keywords : Office, Landscape, Urbanism, Publicity, Landscape Urbanism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도시가 산업화 및 정보화가 급속도로 발전됨에 따라,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은 점차 중요시 되고있고, 그에 따른 다양한 기업들의 오피스 빌딩 수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더해, 도시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시민은 오피스를 이용하거나, 자의적, 타의적으로 접하게 되지만, 이러한 사옥 빌딩이 이처럼 우리 사회의 높은 비중으로 들어섬에 따라, 무분별하고 삭막한 스카이라인의 위협, 과잉 도시화 등의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건축에서 오피스는 저층부 또는 실내 업무공간의 프로그램, 그리고 입면 디자인에만 머무를 뿐이고, 정작 주변 건축물, 외부공간과 내부 공간에 대한 연속성에 관한 도시적 맥락에 관해서는 심층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한계점에서, 현대 도시설계 이론으로 제시된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이란, 도시를 조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물의 디자인이 아니라 도시의 경관을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고찰과 구축 방법을 통해, 단순히 기계적, 기능적인 업무를 위한 건물처럼 보이는 현대 오피스의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능력의 성장을 위한 사색, 휴식 공간을 계획뿐만 아니라, 장소성을 고려한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을 적용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공공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대규모 오피스 빌딩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랜즈케이프 어바니즘 이론이 현대 건축에 제시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둘째 공간적 범위는 국내외 오피스들 중 현대 사회에서 기업으로서 영향력을 갖춘 인지도가 있는 기업이 도심에 위치한 경우들로 한정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방법은 첫째, 개념을 적용할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구축 방법을 분석한다. 둘째, 오피스 공간의 정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오피스 공간에 대해 분석한다. 셋째,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고 분석, 넷째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을 적용한 오피스를 제시한다.

*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석사과정

**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al Design,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kyoungsk@hongik.ac.kr)

2.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고찰

2.1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등장배경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본래 농촌의 토지 단위 및 전원 풍경화와 연관하여 생겨난 Landscape와 오브제 위주의 건축적 한계를 반성하며 대두된 Urbanism이 공존하며 생겨난 단어이며 종래에는 서로 관련 없던 분야가 혼합되면서 새로운 영역을 창출해 가는 동시대적 하이브리드 경향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2.2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주제

James Corner는 랜스케이프 어바니즘 이론의 실질적인 주창자로서 그 주제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제시하였다. 그가 「Landscape Urbanism: A Manual for the Machinic Landscape」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의 랜스케이프 어바니즘 주제는 수평성(horizontal),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프로세스(process), 생태(ecology), 테크닉(technique)인데, 이 다섯 가지 주제는 이 이론의 틀이라고 볼 수 있다.²⁾

하지만, 여지껏 선행논문에서는 랜스케이프 어바니즘 위 이론에 대한 주제들에 대해 세분화 되었지만, 오히려 이러한 세분화가 오피스 건축계획에 혼란스러움을 일으킬 수 있었고, 최근 선행논문 조예진(2022), “랜스케이프 어바니즘 개념을 적용한 도시 오픈스페이스 디자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에 대해 정리한 것이 오히려 계획 적용에 합리적이라고 사료되었다.

코너의 주제들이 발표된 후, 이 주제들을 중심으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추가적인 개념들이 제시된다. 그는 2006년 「Landscape Urbanism Reader」에서 2003년의 주제들을 1) 표면의 각색, 2) 시간에 따른 과정, 3) 작동적 혹은 실행적 방법 4) 상상력 이라는 4가지 주제로 융합 및 재정리 하였다.

표면의 각색은 수평성과 인프라스트럭처의 내용을 융합하였고, 시간에 따른 과정은 프로세스의 형태와 생태를 융합한 주제이다. 작동적 혹은 실행적 방법은 테크닉의 내용을 반복한다. 상상력은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는 주제로 집합적 기억과 지형적, 사회적 상상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러한 주제에 있어 선행논문에서는 공간개념을 도시와 경관의 수평적 연속성, 도시와 경관 구성요소들의 상호연관성, 부지 맥락의 재구성으로 정리하였다.³⁾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와 경관의 수평적 연속성

2) Corner, J. (2003). Landscape Urbanism. In Mohsen Mostafavi and Ciro Najle62 (Eds.), Landscape Urbanism: A Manual for the Machinic Landscape (pp.58-63). London: AA Publications.

3) 조예진. “랜스케이프 어바니즘 개념을 적용한 도시 오픈스페이스 디자인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22. 서울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에서 표면의 각색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도시 표면을 의미한다. 도시 표면이란 도시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지평면을 의미하며, 이는 건물, 도로, 공공시설, 오픈 스페이스, 거주지역과 자연 서식지를 담는다.⁴⁾ 알렉스 월(Alex Wall)은 이 표면의 구조는 넓은 범위의 고정적인 그리고 변화하는 모든 활동들을 체계화하고 지원한다고 말한다. 표면 각색의 하위개념으로 도출된 도시와 경관의 수평적 연속성은 도시와 경관을 연속적인 장(Field)으로 인식하고 수평적으로 확장하여 도시와 경관의 맥락과 흐름을 연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연속성이란 사전적으로 사물이나 현상이 긴밀히 상호 연관되어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계속해서 넘어가는 성질을 정의된다. 따라서 이는 도시와 경관의 형태와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자연스럽게 흐르듯 이어지며 서로 상호 관계를 가지는 것과 관련된다. 이는 도시와 경관을 경계가 불명확한 하나의 수평적 연속체로 보고 열린 구조와 프로그램들의 중첩을 강조한다.

2) 도시와 경관 구성 요소들의 상호연관성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고정적인 성격의 기존 도시계획을 의미하는 테라 피마(Terra Firma)의 반대 개념인 테라 플럭서스(Terra Fluxus)⁵⁾에 기반을 둔 연구이다. 테라 플럭서스 도시의 장을 관통하는 프로세스와 유동성을 의미한다. 시간에 따른 과정은 역동적이고 반응적이며 다양한 사건들이 시시각각 펼쳐지도록 지원하는 계획에 중점을 둔다. 그의 하위개념인 도시와 경관 구성 요소들의 상호연관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도시와 경관이 서로 소통하도록 하는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성질의 개념이다.

이는 도시와 경관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체계로 보며 상황에 따라 복합적인 요소들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구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성은 유연한 구조와 다양한 상황을 수용하는 보이드 공간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3) 부지 맥락의 재구성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일반적인 행태를 담은 형식적인 계획을 넘어서는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지향한다. 제임스 코너는 20세기 도시계획의 실패 원인으로 상상력의 부족을 언급하며 새로운 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장소로서의 도시 공간에 주목한다. 상상력은 부지에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지역적 맥락에 대한 상상력을 적용하여 새로운 관계를 조성하고 상상했던 이미지를 구현하는 것과 관계된다. 부지 맥락의 재구성은 상상력의 하위개념으로 부지에 내재하는 특수성과 부지에 대한 상상력을 반영한 구성요소들의 병치를 통해 맥락을 재구성하고 장소를 형성한다.

4) Wall, Alex, Programming the Urban Surface, Recovering Landscape : Essays in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9, p.234

5) Charles Waldheim(ed.) 엮음, 김영민 역, po.cit., p.30

표1.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공간개념

제임스 코너 2006 주제	선행 연구자 공간개념	특성
표면의 각색	도시와 경관의 수평적 연속성	· 수평적 관의 연속을 통해 도시와 경관을 연계 · 도시와 경관 프로그램들의 중첩을 통해 탈영역화 · 도로 인프라스트럭처와 결합하여 수평적으로 확장 · 가변적인 체계를 통해
시간에 따른 과정	도시와 경관 구성요소들의 상호연관성	· 네트워킹을 구축 · 보이드 공간을 삽입하여 다양한 상황들을 수용 · 조절 가능한 유연한 구조를 통해 복합적인 상호작용 형성
작동적 혹은 실행적 방법	-	-
상상력	부지 맥락의 재구성	·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병치를 통해 맥락을 재구성 · 남겨진 산업시설에 문화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재구성

3. 오피스 건축의 이론적 고찰

3.1 오피스의 공간구성

3.1.1 업무영역

업무 영역의 정의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개인 HE는 그룹으로 업무를 이행하는 공간을 말한다. 업무 영역의 구분은 개인 업무 영역과 임원실로 구별할 수 있다. 개인 업무 영역은 개인을 위한 워크스테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6)

3.1.2 업무지원 영역

업무지원 영역은 업무를 보조한 공간을 뜻하며, 회의실, 교육장, OA 실, 메일룸, 수납공간이 속해있다. 회의실은 규모에 따라 소·중·대회의실로 구분할 수 있다. 회의의 성격에 따라 오픈형과 폐쇄형으로 나누어진다.

3.1.3 공용 영역

공용 영역은 업무 영역을 제외한 휴게공간, 접객실, 탕비실, 유희공간 등이 포함된다. 공용 영역은 조직에 있어 크게 두 가지 기능의 공간으로 존재한다. 휴식과 편의 공간에서는 조직 구성원 모두 접근이 용이하게 계획되어야 하며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3.1.4 통로 영역

업무 영역에 있어 통로 영역은 공용 영역에 속하기도 하지만 동선과 관련된 요소이므로 분리 기술하였다. 통로 영역은 주된 통로와 그를 보조하는 통로로 나눌 수 있다.

6) 윤은경. "業務環境 變化에 따른 오피스 공간의 특성과 디자인에 관한 研究." 국내박사학위논문 弘益大學校 大學院, 2015. 서울

4. 사례조사 및 분석


4.1 사례 분석방법

국내·외 오피스 중에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적용된 건축물들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례에서 의도한 디자인을 업무공간들로 분류하기보다, 이론을 도시적 맥락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중점으로 사례의 틀을 만들었다.

4.2 Amore percific 사옥

아모레퍼시픽 사옥은 증정은 세 개의 개구부를 통해 주변 환경과 연결되고 도시와 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공간이다. 개구부는 개별적인 '옥상정원'으로 기능한다. 이 열린 공간은 건물의 규모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건물 주변을 둘러싼 공원의 자연이 건물안에 스며들게 한다.


표2. Amore percific 사옥 사례분석 틀

개요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년도	2018	
	설계	David Chipperfield	
	규모	지하 7층, 지상 23층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특징	공간개념		공간요소
	도시와 경관의 수평적 연속성		-
	도시와 경관 구성요소들의 상호연관성		보이드(Void)한 입면 디자인, 테라스
부지맥락의 재구성		저층부 코어 창의적 계획으로 미술관 등의 문화적 프로그램 도입	

4.3 CLIO 사옥

도시의 풍경을 찍듯이 테라스의 위치와 방향을 목표가 지고 설정하였다. 거의 모든 층에서 남쪽으로 한강, 쪽으로 남산, 멀리 동쪽으로 롯데타워를 조망할 수 있다.


표3. CLIO 사옥 사례분석 틀

개요	위치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56-447	
	년도	2020	
	설계	OCA	
	규모	지하 2층, 지상 14층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특징	공간개념		공간요소
	도시와 경관의 수평적 연속성		테라스, 아트리움
	도시와 경관 구성요소들의 상호연관성		-
부지맥락의 재구성		저층부 상업시설 계획	

4.4 Sliced Porosity Block

중국 청두의 중심, 도로의 교차점에 있는 Sliced Porosity Block은 다양한 기능이 혼합된 대규모 공공 광장을 형성하고, 상징적인 고층 빌딩 대신 대도시의 공공 공간을 조성하는 이 넓은 규모의 프로젝트는 자연 채광의 분포를 통해 그 형태를 취하고 있다.


표4. Sliced Porosity Block 사례분석 틀

개요	위치	중국, 청두시	
	년도	2012	
	설계	Steven holl	
	규모	지상33층	
랜즈케이프 어바니즘 특징	공간개념		공간요소
	도시와 경관의 수평적 연속성		외부로부터 이어지는 경사로
	도시와 경관 구성요소들의 상호연관성		보이드(Void)한 입면 디자인
	부지맥락의 재구성		내부 광장

4.5 Exploration and Production Business Center

주요 건물인 ‘아이콘 타워, 랜드마크 타워, 스카이가든 타워’는 곡선과 경사면으로 인해 활기를 띠고, 중앙 광장을 향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절반 높이의 부속 건물이 달려있다. 부속 건물의 옥상에는 정원을 조성하고, 한쪽 끝에는 브리지를 설치하여 광장 맞은편에 있는 11층 규모의 아이콘 타워와 연결했다.

표5. Exploration and Production Business Center 사례분석 틀

개요	위치	이탈리아 밀라노	
	년도	2022	
	설계	Morphosis Architects	
	규모	지하1층, 지상11층	
랜즈케이프 어바니즘 특징	공간개념		공간요소
	도시와 경관의 수평적 연속성		건물을 잇는 공중 보행로
	도시와 경관 구성요소들의 상호연관성		경사로
	부지맥락의 재구성		중앙부 광장

5. 결론

국내 오피스 사례에서는 건물 저층부에 대한 새로운 코어 공간구성이나, 보이드(Void)한 입면 디자인 또는 밖을 조망하는 테라스 디자인 등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부지 맥락의 재구성의 대한 계획으로 저층부에 상업 또는 문화 시설 관련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에 그칠 뿐이고, 오피스 빌딩의 무분별한 고층 스카이라인의 경관적 측면, 그리고 건물의 수평적 연속성, 그리고 도시와 경관 구성 요소들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한 경사로 그리고 공중 보행로 등의 요소들은 부족하였다.

반면 해외 오피스 건축물은 건물 중앙부 광장이나, 공중 보행로, 주변 도시 맥락과 이어지는 경사로 또는 진입로 등에 대한 고민, 그리고 보이드한 입면 디자인 등으로 인한 경관까지 고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김표. “랜즈케이프 어바니즘 이론에 바탕을 둔 도시공간 설계전략.” 국내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민대학원, 2023. 서울
- 조예진. “랜즈케이프 어바니즘 개념을 적용한 도시 오픈스페이스 디자인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22. 서울
- Corner, J. (2003). Landscape Urbanism. In Mohsen Mostafavi and Ciro Najle62 (Eds.), Landscape Urbanism: A Manual for the Machinic Landscape (pp.58-63). London: AA Publications.
- Waldheim, C. (2006). The Landscape Urbanism Reader (pp.36-51).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 Wall, A. (1999). Programming the urban surface. In James Corner (Ed.), Recovering landscape: Essays in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 (pp.233-249).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 윤은경. “業務環境 變化에 따른 오피스 공간의 특성과 디자인에 관한 研究.” 국내박사학위논문 弘益大學校 大學院, 2015. 서울
- 제레미 마이어슨 · 필립 로스, 일과 공간의 재창조
- <https://www.c3korea.net/>
- <https://www.archdaily.com/>